

# 겸재 정선 <인왕제색도>, 강서구 겸재정선미술관 유치 촉구 결의안

(박주선 의원, 송영섭 의원 공동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 - 67
----------	-----------

발의연월일 : 2021. 6. 7.

발 의 자 : 박주선, 송영섭, 김현희, 송순효,  
김동협, 김용원, 황영호, 황동현,  
이충현, 정정희, 김병진, 윤유선,  
이충숙, 최동철, 김성한, 경기문,  
이의걸, 박성호, 신낙형, 강선영,  
이종숙, 김선경

## 1. 의결주문

- 겸재 정선 <인왕제색도>, 강서구 겸재정선미술관 유치 촉구 결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 인왕제색도는 겸재정선 선생의 진경산수화의 대표작이며 육상궁 뒤편  
북악산 줄기의 산등성이에서 바라본 인왕산을 그린 것으로 비가 갠  
인왕산을 장쾌하고 호탕한 필묵법으로 그린 만년의 걸작인 작품임
- 국보 제216호 「인왕제색도」는 현재 故 이건희 회장이 정부에 기증한  
문화재이며 정부는 수장 및 전시 공간 부족 등 이에 대한 우려를 제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2009년 4월 양천현아가 있던 궁산 자락에  
겸재에 관한 최고의 전문미술관인 겸재정선미술관을 개관하고 유물 수집,  
겸재 학술대회 등 다방면으로 활동에 노력한 결과 원화 23점을 보유·  
전시하고 있으며, 겸재 선생의 회화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강서구의 겸재정선미술관이 겸재  
정선 작품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정부가 「인왕제색도」를 강서구에  
유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함

## 3. 결의안: 붙임

## 겸재 정선 <인왕제색도>, 강서구 겸재정선미술관 유치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조선 후기의 화성이자 우리 고유의 화풍인 진경산수를 창안하신 겸재 정선 선생이 양천현령으로 5년간 봉직하신 곳입니다.

이때부터 그리기 시작해 완성한 「경교명승첩」에는 총 33점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양천십경은 강서지역의 풍광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양천팔경첩은 미술관 옆 궁산에서 바라본 한강변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는 이러한 겸재 정선선생과의 인연과 진경산수화를 후세에 계승 발전시키고자 2009년 4월 양천현아가 있던 궁산 자락에 겸재정선 미술관을 개관하고 유물수집, 전시, 교육, 학술대회, 문화사업 등 다방면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개관 이래 지금까지 유물수집 활동을 계속한 결과 원화 23점을 보유 전시하고 있고, 매년 겸재 학술대회 및 겸재논문현상공모 사업을 통해 연구결과를 논문집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재정선미술관 주관으로 매년 12개 관련 강좌를 개설 운영하여 200여명의 후학들에 의해 겸재 선생의 회화정신과 진경산수화의 가치에 대하여 많은 논의의 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견화가들을 대상으로 19년째 약 3,800여명이 참여한 겸재진경미술대전을 개최하여 겸재의 진경산수화를 한국화적 또는 서양화적으로 해석하여 표현한 작품들을 시상하고 전시해 오고 있으며, 20~30대의 젊은 화가들에게는 내일의 작가전이라는 공모대회를 통해 진경산수화를 젊은 세대의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해서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12년째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왕제색도는 겸재선생의 진경정신과 회화적 기법이 가장 잘 표현된 진경산수화의 진수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왕제색도가 있어야 할 곳은 국립중앙박물관 보다는 겸재정선미술관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정부는 조속히 강서구로 유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인왕제색도」가 학문 연구와 전시 문화 활동에 큰 원동력이 되어 한국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강서구에 위치한 전문미술관인 겸재정선미술관에 유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인왕제색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훨씬 많은 전시회가 겸재정선미술관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관람객이 한국화의 진수를 만나 한국 문화의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